종교기도와 복음기도의 차이

(시편 116:1~19)

1.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3.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5.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6.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7.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8.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9.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종교 기도와 복음 기도의 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종교 기도와 복음 기도의 차이’
종교적인 기도와 복음적인 기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기도생활의 방향을 바로잡고 박차를 가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늘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든지 막론하고 기도로 구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복음성가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라고 하지만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생각하면 함부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일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광풍을 만난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단잠을 주무시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사투를 벌이다가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배를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의 성화에 못 이기시고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인지상정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밤에 배를 타고가다 광풍을 만나면 두려워 떠는 것이 당연했고 제자들은 어부들이었는데 불구하고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도 삶에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납니다. 가벼운 파도가 아닌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 데 왜 걱정하십니까?'라는 복음성가와는 반대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풍랑 속에서 주무셨던 대로 풍랑 속에서 잠잘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봅니다. 내게 주어져있는 삶의 물리적인 상태가 변해서 안정되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삶의 문제는 계속 풍랑처럼 일더라도 나는 그 안에서 곤히 잘 수 있을 정도로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걱정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7절이 문제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과 지켜 주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생겼다면 돈 문제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돈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구하는 것을 받으리라는 확증은 없습니다. 또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지만 감사함은 내가 구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므로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응답도 되기 전에 미리 감사하며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다시 해석해봅니다. 돈 문제가 생겼을 때에 '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지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 문제가 있으면 돈이 주어짐으로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문제의 해결은 돈이 주어지든 않든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돈 문제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참 기도라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만약 풍랑만난 배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풍랑 위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평강을 주시는 것이 응답이라면 이 기도는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풍랑으로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운 것은 곧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이는 곧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교적 기도와 복음적 기도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오늘 시는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허락해주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시의 저자와 배경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길에 올랐다가 상황이 역전되어 왕궁으로 귀환하여 지은 시가 아닐까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시 자체가 충분히 신앙적이고 영적인 주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점은 극심한 환란 중에 드린 기도와 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리면 극심한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내용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1~4절까지를 다시 살펴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3절을 보면 기도하게 된 상황이 나타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고통에 처한 상황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상황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원수들 때문에 고통에 처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고는 자연히 원수가 나를 대적하는 상황이 변함으로써 그 결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이 되찾아질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리적 상황이 변하거나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구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되자 마음에는 먹구름이 가득하고 인생 끝났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돈 문제나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암으로 생겨난 마음의 고통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암이 치료되어야 하고, 돈 문제나 자녀 문제로 인해 생겨난 영혼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시인은 대적들로 인한 마음의 고통에서 구원받고자 하는데 대적들이 사라지기를 바랐던 것일까요? 원수들에게 사고가 생기거나 불이익이 발생해서 나를 공격할 여력이 없어지면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오늘 시인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

픔을 만났을 때에'라고 하면서 영혼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증하는 구체적인 구절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라고 하였더니 7~8절에서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영혼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는 말도 영혼이 실족하는 상황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을 구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구절들을 이해해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상황을 보면 몸이 죽는 환경이 되어도 영혼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시인은 지금 사망의 줄에 매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통해 영혼의 절대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15절에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껏 사망의 줄에서 간구함을 통하여 극적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되었는데 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귀중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하찮은 것이 아니라 보석과 같이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안을 얻은 상태에서 시인은 자신의 몸이 그대로 죽었을지라도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보석과 같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과적으로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 육신을 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 자체는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줄에 매여서 슬프고 괴로워 죽겠다고 호소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자, 태도를 바꾸어서 이제는 죽게 되더라도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9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육체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앞에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암에 걸렸더라도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시고 계셨습니다. 순서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맞습니다. 암이라는 문제를 우선시하기 위해서는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고 옆으로 치워야만 합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문제를 우선시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을 옆으로 치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돈 문제를 끌어안고서야 하나님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은 내 육체의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운 존재로써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종교적 기도와 복음적 기도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복음'은 전지전능하시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사건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마땅히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기도는 영적으로 고아의 상태와 같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내가 주체가 됩니다. 영적으로 상의할 아버지가 없이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기도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기에 종교적 기도와 복음적 기도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적 기도는 어떤 문제보다도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기도입니다. 그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에 기존의 기도와는 충돌이 생깁니다. 기존에 종교적 기도를 드릴 때에는 문제 안에 마음을 머물게 하였습니다. 문제를 붙잡고 신들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를 붙잡고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 질 것을 바라는 것이 종교적 기도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복음적 기도를 하려면 이러한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동안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문제를 주셨다면 우선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함에서 나온 것이라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없고 해결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문제에 묶여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을 문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입하실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은 달리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서도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에 묶인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나는데, 감히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함부로 이 상황의 개선 방법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육체에 묶인 상태에서 세상의 가치판단으로 돈 없으면 큰일이고, 육체가 죽으면 큰일이고, 취직이 안 되면 큰일로 여기는 가치기준을 해방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우선시해야합니다.

돈 문제가 생긴 것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과 적극성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며, 앞으로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육체에 묶여서 세상의 가치판단대로 똑같이 걱정하고 두려워함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육체에 매인 상황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구하고, 마음이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 몸과 마음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는 말단 직원이지만 아들이 서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아들은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님의 야단을 들을 상황이 되어도 마음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내 몸은 대한민국에서 편하게 살고 있어도 호주로 유학 간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마음이 절대 편할 수 없습니다. 몸은 편한데도 마음은 불안에 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내 몸은 돈이 없는 상황에 놓여있을지라도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면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아버지를 얼마나 생동감 있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하게 된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사실로 믿는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낼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조금만 덜 사랑하셨고, 조금만 덜 전지전능하셨고, 조금만 덜 적극적이셨더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을 간구할 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크기와 정도와 밀도와 적극성은 그러한 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결국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등진 세상은 하나님에게까지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적극성과 전지전능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문제는 육체에 묶인 내 마음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방법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종교인의 기도라면 그 상황에 머물며 상황을 바꾸기 위해 종교의 신들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서 상황을 바꾸려고 기도한다면 종교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하심과 내 삶에 개입하시는 적극성을 믿는 복음에 입각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육체가 처한 상황에 묶인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몸이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때문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이라면 죽음조차도 오히려 복이 되고 최선의 길이며 하나님께 보석처럼 귀중히 여겨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복음이 제공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충분히 만끽하시는 가운데 오늘 드리는 모든 기도는 종교적 기도가 아닌 복음적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쉬지 않고 기도하는 알찬 기도의 생활이 이어져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복음을 통하여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답게 매 순간을 기도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